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12

투자 기초와 투자자 권리

수익 가능성과 손실·유동성·비용을 같은 표에 놓고 투자자 권리를 행사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수익·위험·유동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 분산·기간·비용·레버리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 설명서의 핵심 위험과 지속가능성·친환경 주장 근거를 찾는다.
- 불완전판매·무등록 권유·허위 녹색 주장에 기록으로 대응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투자는 수익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투자상품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함께 원금손실·현금화 어려움·비용을 가집니다. 병원비나 월세처럼 곧 써야 할 돈을 투자하면 가격이 내려갈 때 손실을 확정하고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원금·수익률·손실·유동성·분산을 먼저 이해한 뒤 상품과 권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생활비와 비상자금
- 감당 가능한 손실한도
- 필요할 때 현금화할 능력
- 과도한 집중과 차입 방지
- 설명·적합성 관련 투자자 권리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원금과 손익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수익률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위험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유동성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분산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기대수익보다 돈의 목적·기간·비상자금 분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 분산을 종목 수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 친환경·유명인·과거수익 문구가 손실보호를 뜻하지 않음을 대조합니다.
- 특정 상품 추천과 미래수익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원금과 손익

원금은 투자한 돈이고 손익은 그 돈이 늘거나 줄어든 결과입니다.

- 생활 예: 100만원이 90만원이 되면 평가손실 10만원이 생깁니다.
- 반대 예: 팔지 않았으므로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가격변동은 현금화 시점과 생활목적에 따라 실제 영향을 만듭니다.
- 이해확인: 팔지 않으면 손실은 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나요?

도달 기준: 필요한 시점에 팔아야 한다면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투입한 돈에 비해 손익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 생활 예: 100만원이 110만원이 되면 비용 전 수익률은 10%입니다.
- 반대 예: 과거 수익률을 앞으로 받을 확정이자로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수익률은 기간·비용·세금·위험과 함께 해석합니다.
- 이해확인: 지난해 20% 오른 상품은 올해도 20% 오르나요?

도달 기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위험

수익이 예상과 달라지거나 돈을 잃고 무일 가능성과 영향입니다.

- 생활 예: 가격하락·발행자 부도·환율·현금화 지연을 나누어 봅니다.
- 반대 예: 가격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만 위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위험은 손실 원인·크기·시점·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 이해확인: 가격이 안정적이면 원금손실 위험도 항상 없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신용·유동성 등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필요할 때 큰 손해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생활 예: 거래가 적은 상품은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반대 예: 매도 버튼이 있으니 언제나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사용 시기가 가까운 돈일수록 유동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이해확인: 팔 수 있다는 말과 제값에 빨리 팔 수 있다는 말은 같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시간과 가격손실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분산

같은 위험에 돈이 한꺼번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 생활 예: 회사·산업·국가·통화가 서로 다른 위험에 나눕니다.
- 반대 예: 이름이 다른 종목을 여러 개 사면 무조건 분산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분산은 종목 수보다 함께 움직이는 위험이 겹치는지를 봅니다.
- 이해확인: 같은 산업의 다섯 종목은 완전히 분산된 건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같은 산업 위험에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수익과 위험

도입 질문: 높은 수익은 어디에서 올까요?

투자수익은 이자·배당·가격상승 등으로 생길 수 있지만 결과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험은 단순히 가격이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나 필요한 때 돈을 쓰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더 큰 불확실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는 구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수익이 생기는 원천을 설명합니다.
- 판단 순서 2: 최대손실과 손실이 생기는 조건을 찾습니다.
- 판단 순서 3: 그 손실이 생활계획을 해치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 시범 사례: 연 15%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라면 누가 어떤 사업이나 자산에서 수익을 만들며 실패 때 누가 손실을 지는지 확인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수익률이 높게 표시됐다는 이유로 좋은 상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험과 기간이 함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예상수익률이 높으면 원금손실 가능성은 낮을까요?

도달 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기대수익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복리·비용·물가

도입 질문: 수익률 숫자가 실제 이익과 같을까요?

복리는 수익이 다시 원금에 더해져 다음 수익의 바탕이 되는 효과입니다. 반대로 손실과 높은 비용도 장기간 누적되어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표시수익률에서 수수료·세금·물가상승을 빼야 실제 구매력의 변화에 가까워집니다.

- 판단 순서 1: 투자기간과 수익 계산방식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가입·운용·환매 수수료와 세금을 찾습니다.
- 판단 순서 3: 물가를 고려한 실질 결과를 비교합니다.
- 시범 사례: 수익률 5%라도 비용 1%, 세금과 물가상승이 있다면 생활에서 느끼는 실제 증가는 5%보다 작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수수료 1%는 작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장기투자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표시수익률 6%면 내 자산도 6% 늘까요?

도달 기준: 비용·세금·투자시점과 가격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릅니다.

3. 분산과 유동성

도입 질문: 여러 개를 사면 자동으로 안전할까요?

분산은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자산에 나누어 한 사건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름만 다른 비슷한 자산을 여러 개 사는 것은 충분한 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필요할 때 큰 가격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곧 쓸 돈은 환금이 어려운 상품과 맞지 않습니다.

- 판단 순서 1: 자산마다 손실 원인을 적습니다.
- 판단 순서 2: 같은 시장·기업·통화에 몰렸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돈이 필요한 날짜와 환매조건을 맞춥니다.
- 시범 사례: 국내 반도체 기업 주식 다섯 종목은 종목 수는 많아도 같은 산업 위험에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상품 개수가 많으면 분산됐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위험의 원천이 달라야 합니다.
- 확인 질문: 1년 뒤 전세보증금으로 쓸 돈을 환매 제한 상품에 넣어도 될까요?

도달 기준: 필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품 구조와 투자자 권리

도입 질문: 내 돈은 누구에게 가고 무엇을 받나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은 돈이 사용되는 곳과 내가 갖는 권리가 다릅니다. 상품 이름보다 발행자, 운 용자, 기초자산, 손실부담과 상환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와 적합성 등 소비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손실이 자동으로 보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판단 순서 1: 계약 상대와 상품의 법적 형태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수익·손실이 결정되는 조건을 그립니다.
- 판단 순서 3: 설명자료·거래내역·권리행사 기한을 보관합니다.
- 시범 사례: 채권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금리를 받는 예금이 아니라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입니다.
- 바로잡을 오해: 금융회사가 판매한 상품이면 원금이 보호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확인 질문: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이 있으면 모든 손실은 투자자 책임인가요?

도달 기준: 사실관계와 법 적용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설명자료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6개월 뒤 쓸 병원비 투자

6개월 뒤 필요한 병원비 300만원을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에 넣으려 합니다.

- 결정: 돈의 목적과 사용 시기를 먼저 적습니다.
- 정보: 원금변동·현금화·비용을 확인합니다.
- 위험: 필요할 때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고 팔 수 있습니다.

- 행동: 병원비와 장기 투자금을 분리합니다.
- 기록: 투자 가능한 금액과 손실한도를 적습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투자는 환율·거래비용·세금을 수익률에 함께 넣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도 환율, 환전 스프레드, 수수료, 세금 때문에 실제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앱에 표시된 원화 평가손익을 최종 세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매수·매도 환율, 환전비용, 현지·국내 수수료, 배당·양도 관련 신고를 같은 거래 기록에 적습니다.

지금 할 일: 최악의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까지 계산하고,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검토 2026-08-24

https://www.nts.go.kr/tax/yangdo_1.html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비상금 주식투자

수익을 높이려고 비상자금을 주식에 넣으려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목적과 기간이 다른 돈을 분리한다.
- 추가정보: 급락 때 필요한 돈이면 손실을 확정하고 팔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비상자금은 접근성과 원금 변동을 우선하고 투자자금과 분리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대형주면 안전하다고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필요하면 바로 팔면 된다고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한 종목 집중

익숙한 회사라서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확신과 위험한도를 분리한다.
- 추가정보: 직장과 투자자산이 같은 회사에 묶이면 위험이 더 집중될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회사·산업·국가·통화 위험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한도를 정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잘 아는 회사이므로 집중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하락할수록 무한히 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펀드 비용

수익률이 비슷한 펀드의 비용 차이를 무시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확정 비용부터 비교한다.
- 추가정보: 상품별 비용 표시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총보수·판매·환매·성과보수와 추적 차이를 함께 비교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가입 선물만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지난해 수익률만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친환경 투자

친환경이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환경 주장과 투자 위험을 각각 검증한다.
- 추가정보: 지속가능성 주장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분류 기준·자금 사용·측정지표·외부검증·정기공시를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광고 색상과 문구를 믿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수익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빚내서 물타기

손실을 만회하려고 신용대출로 추가 매수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손실 확대 가능성과 상환 의무를 함께 본다.
- 추가정보: 가격이 더 하락해도 대출은 약정대로 갚아야 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차입비용·추가손실·상환일을 계산하고 레버리지를 중단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평균단가가 낮아지니 계속 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생활비도 투자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분산하면 손실이 없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장기투자는 어떤 가격에도 안전하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친환경 이름이 붙으면 사업과 수익도 검증됐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투자 기초와 투자자 권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목표 금액·기간·중간 인출 가능성을 적는다.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표 금액·기간·중간 인출 가능성을 적는다.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표 금액·기간·중간 인출 가능성을 적는다.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표 금액·기간·중간 인출 가능성을 적는다.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목표 금액·기간·중간 인출 가능성을 적는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비상금 주식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비상자금은 접근성과 원금 변동을 우선하고 투자자금과 분리한다.

A. 목적과 기간이 다른 돈을 분리한다. 급락 때 필요한 돈이면 손실을 확정하고 팔 수 있다.

B. 이 선택은 '대형주면 안전하다고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목적과 기간이 다른 돈을 분리한다. 급락 때 필요한 돈이면 손실을 확정하고 팔 수 있다.

C. 이 선택은 '필요하면 바로 팔면 된다고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목적과 기간이 다른 돈을 분리한다. 급락 때 필요한 돈이면 손실을 확정하고 팔 수 있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목적과 기간이 다른 돈을 분리한다. 급락 때 필요한 돈이면 손실을 확정하고 팔 수 있다.

7. 사례 '한 종목 집중'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회사·산업·국가·통화 위험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한도를 정한다.

A. 확신과 위험한도를 분리한다. 직장 and 투자자산이 같은 회사에 묶이면 위험이 더 집중될 수 있다.

B. 이 선택은 '잘 아는 회사이므로 집중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확신과 위험한도를 분리한다. 직장 and 투자자산이 같은 회사에 묶이면 위험이 더 집중될 수 있다.

C. 이 선택은 '하락할수록 무한히 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확신과 위험한도를 분리한다. 직장 and 투자자산이 같은 회사에 묶이면 위험이 더 집중될 수 있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확신과 위험한도를 분리한다. 직장 and 투자자산이 같은 회사에 묶이면 위험이 더 집중될 수 있다.

다.

8. 사례 '펀드 비용'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총보수·판매·환매·성과보수와 추적 차이를 함께 비교한다.

- A. 확정 비용부터 비교한다. 상품별 비용 표시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다.
- B. 이 선택은 '가입 선물만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확정 비용부터 비교한다. 상품별 비용 표시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다.
- C. 이 선택은 '지난해 수익률만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확정 비용부터 비교한다. 상품별 비용 표시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확정 비용부터 비교한다. 상품별 비용 표시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다.

9. 사례 '친환경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분류 기준·자금 사용·측정지표·외부검증·정기공시를 확인한다.

- A. 환경 주장과 투자 위험을 각각 검증한다. 지속가능성 주장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 B. 이 선택은 '광고 색상과 문구를 믿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경 주장과 투자 위험을 각각 검증한다. 지속가능성 주장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 C. 이 선택은 '수익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경 주장과 투자 위험을 각각 검증한다. 지속가능성 주장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경 주장과 투자 위험을 각각 검증한다. 지속가능성 주장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10. 사례 '빚내서 물타기'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차입비용·추가손실·상환일을 계산하고 레버리지를 중단한다.

- A. 손실 확대 가능성과 상환 의무를 함께 본다. 가격이 더 하락해도 대출은 약정대로 갚아야 한다.
- B. 이 선택은 '평균단가가 낮아지니 계속 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손실 확대 가능성과 상환 의무를 함께 본다. 가격이 더 하락해도 대출은 약정대로 갚아야 한다.
- C. 이 선택은 '생활비도 투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손실 확대 가능성과 상환 의무를 함께 본다. 가격이 더 하락해도 대출은 약정대로 갚아야 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손실 확대 가능성과 상환 의무를 함께 본다. 가격이 더 하락해도 대출은 약정대로 갚아야 한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수익·위험·유동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분산·기간·비용·레버리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설명서의 핵심 위험과 지속가능성·친환경 주장 근거를 찾는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불완전판매·무등록 권유·허위 녹색 주장에 기록으로 대응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13 가상자산·신종상품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
- 한국거래소 · 투자자교육·공시 · <https://www.krx.co.kr/>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교육원 · <https://www.kifin.or.kr/>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소비자보호 · <https://www.fsc.go.kr/>